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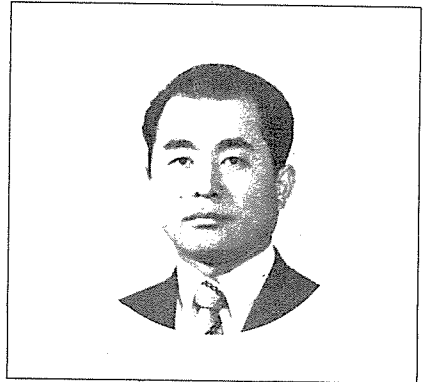
“技術의 精密化로 국제경쟁력 높여야”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도의 精密集約産業에 주력해야 합니다. 金在官 한국정밀공학회장(인천대학교수)은 우리나라가 先進國대열에 끼려면 정밀기술집약산업에 관심을 갖고 실제와 직결된 차원높은 精密度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유망산업이라고 일컫는 반도체산업을 비롯 전자, 자동차, 우주항공산업등도 모두가 기계공업의 기반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들 산업이 발달하려면 이들 정밀기술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술체제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지요. 金在官 회장은 현대는 과거의 전통 기술기반위에 전자·전기·세라믹스·물리·화학 등이 복합된 새로운 복합기술에 의한 산업혁명이 일고 있으며 예전보다 몇차원 높은 精密技術을 핵으로 한 産業社會로 진입했다고 밝힌다.

이웃 日本이나 独逸등이 전쟁의 상처를 씻고 先進強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술개발을 잘 활용하여 그들 특유의 정밀화와 실용화로 국제 경쟁력을 배가시켰기 때문이며 또한 자원이 빈약하고 4개 인종이 모여사는 스위스는 초정밀 기술을 잘 활용함으로써 先進富國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면서 이와 여건이 비슷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정밀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金회장은 이어 우리의 정밀도 수준을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5단계에서 3단계정도의 수준(日本 4단계, 미국은 5단계 수준)이라고들 말하지만 이는 잘못된 파악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정밀도운운은 시기상조라고



金在官 회장

일침을 가한다. 흔히들 우리의 수준이 중진국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할 하지만 우리의 기술수준은 일부 기술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는 것.

“3~4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근대화를 이룬 우리나라로서는 제대로 기술축적이 안된 상태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선은 기반구축이 급선무입니다. 金회장은 우리나라에 1백여개에 달하는 공작기계생산업체가 있는데 이중 고정밀공작기계생산업체는 십여군데에 불과할 뿐더러 대부분의 공장들이 정밀도에 대한 개념조차 희박한 영세 군소업체들이라고 지적한다.

金회장은 “우리나라 업체간의 기술격차가 너무 커서 이를 좁히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해외시장에 내놔서 손색이 없는 고차원적인 복합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업체간의 기술 평준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기술격차는 산업계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제

도적인 지원과 함께 보호·육성책이 마련돼야 합니다.」金회장은 80년대이후 생산기술에 대한 투자가 대폭 줄어들어 따라 日本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적인 기반구축에 주력해야 한다는것.

金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과학(basic Science)뿐만아니라 기초기술(infra technology)의 확립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기초기술을 확고히 해야 비로소 그 기반위에 新技術을 축적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金회장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평가가 뒤지고 있는 것은 이 기초기술이 미약하고 제품의 정밀도가 뒤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기초기술의 확립없이는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이제부터라도 기초기술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밀기술의 기본단위의 하나인 時間의 표준화도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누누이 부르짖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제도의 확립뿐만 아니라 國家標準時報의 제정문제 또한 중요하지요』金회장은 아직까지 時報에 한해서는 日本의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첨단기술을 부르짖기에 앞서 이처럼 자그마한 기초기술부터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학계를 비롯, 산업계·연구계가 다 같이 참여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해 韓國精密工學會가 설립된것이라고 설립동기를 밝힌다.

『韓國精密工學會는 academic한 측면보다도 실제기술을 다루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밀산업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金회장은 설립당시에는 精密機械學會로 발족했으나 기계공업중 5%미만을 차지하는 정밀기계뿐만 아니라 모든 정밀공학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학회명칭을 정밀공학회로 개칭하고 설립목적도 확실히 했다고 밝힌다.

『정밀공학은 기계공학을 핵으로 전자공학 전기공학, 금속공학, 화학, 레이저공학등이 복합된 공학으로 고도의 정밀기기로 생산할 수 있는

높은 기술수준을 말합니다』金회장은 우리나라가 국제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밀공학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학회가 앞장서서 이 분야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사회분위기 진작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힌다.

『우리학회는 다른 어느 학회보다도 산학협동을 강조하고 산학협동체제 모색을 위해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金회장은 특히 산하에 「정밀가공」위원회를 비롯 「계측제어」 「자동화」 「생산시스템」등 4개부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체에서 필요로하는 첨단기술을 제공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점을 파악, 애로기술해소에도 도움을 줄 작정이라고 밝힌다. 이와 함께 학회지에도 산업체인사들의 기술논문을 많이 실어 정보교류도 원활히 하고 있다고.

『산업계와 학계인사들이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만남의 場이 되도록 대화의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는 한편 상호정보교류를 위해 情報流通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金회장은 학회 모든 사업에 산업계인사들 대폭 참여시키고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이용자 및 엔지니어링업체의 가입을 적극 유도해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현재 5백명에 달하는 회원수를 금년말까지는 1천명선으로 끌어 올리고 기업체가 회원인 찬조회원수도 30개사를 확보하는 것이 올해의 당면목표입니다』金회장은 이와함께 오는 5월 서울에서 공작기계협회 주최로 열리는 국제공작기계전시회 기간중에 실시될 국제학술대회 개최준비 또한 올해 사업계획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다.

『학회가 너무 세분화되고 있어 학문간의 gap을 없애고 융화시키는 데 힘쓰는 한편 정밀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 국가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설립된지 세해째를 맞은 新生學會의 2대 회장을 맡은 金在官회장은 비록 연륜을 짧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선진화는 물론 정밀산업분야 발전에 촉매역할을 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權光仁記)